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2~7/2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벼리는 불교가 궁금해	변택주	불광출판사	6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2	대승기신론 신강	지안	조계종출판사	7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원영	불광출판사
3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법상/용정운	조계종출판사	8	한글경전 모음집	적행	비움과소통
4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석지현/윤창화/일지	민족사	9	화엄경 약찬게 풀이	김현준	효림
5	주요 우빠니샤드 18책	현진	조계종출판사	10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6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한글 원각경	함허득통/원순	법공양	7	밀어 붙여라	수불	해조음
3	부처님의 생애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8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오진탁	자유문고
4	금강경 역해	각묵	불광	9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5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10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세트	원영	불광출판사

난해한 〈근본중송〉, 마침내 읽히다



나가르주나의 중도

마크 시더리츠·가쓰라 쇼류 지음
김성철·홍창성 옮김
불광출판사
3만2000원

인도 대승불교 중관학파 핵심 논서
440개 게송에 방대학 주석 덧붙어
美·日 학자 주석서 4종 비교·분석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서기 150년경 저술된 나가르주나의 〈근본중송〉은 인도 대승불교의 사상적 토대를 이룬 중관학파의 핵심 논서다. '공(空)'과 '연기(緣起)', '중도(中道)'라는 철학적 담론을 담아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초기 대승 경전의 '모든 존재는 공하다'는 선언을 논증하며 아비달마론자인 대론자(對論者)들의 주장을 논파했지만, 원전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총 27품 440여 개의 극도로 압축된 게송으로 구성된 데다, 2000년간 방대한 주석과 해석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해함을 해소하고 나가르주나의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는 해설서 〈나가르주나의 중도〉가 번역·출간돼 주목된다. 인도불교철학의 권위자인 마크 시더리츠 일리노이주립대 명예교수와 세계적 불교논리학자 가쓰라 쇼류 히로시마대 명예교수가 십여 년간 공동 연구한 결실이다.

두 저자는 현존하는 인도 주석서 4종(작자 미상의 〈불외론〉, 붓다팔리타의 〈중론주〉, 바비베카의 〈반야등론〉, 찬드라키르티의 〈명징한 언어〉)을 비교·분석해 가장 적절한 해석을 선별했다. 이를 바탕으로 게송을 번역하고 현대적 분석을 더해, 각 게송이 겨냥한 대론자와 논쟁의 맥락, 논증 전개 과정을 명확히 밝혀냈다.

국내 번역은 산스크리트 원전 연구와 불교학 기초 연구를 이어 온 김성철 금강대 교수와 불교철학의 현대적 해석에 힘써 온 홍창성 미네소타주립대 교수가 2년여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번역은 두 교수가 전담했으나,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불교학자 5명(김성철·박수현·유선경·임승택·홍창성)이 온라인에서 격주로 함께 강독하며 검증한 연구의 공덕이 담겼다.

나가르주나는 〈근본중송〉에서 동료 불교도들을 청중으로 삼는다. 주목할 점은 당시 청중들이 오직 '다르마(法)'만이 궁극적으로 실재한다는 아비달마 학파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다르마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면서도 고유한 자성을 지니며, 이 궁극적 진리를 깨달을 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나가르주나는 다르마가 실재한다는 대론자의 주장을 배격한다. 인격체나 복합물이 자성 없는 개념적 허구이듯, 다르마 역시 자성이 없으며 애초에 고유한 자성을 지닌 실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것은 공(空)하다'는 나가르주나의 입장에는 이러한 사유가 담겨 있다.

아울러 나가르주나는 오온(五蘊)이 궁극적으로 실재한다고 받아들인 대론자들의 관점을 반박한다. 나아가 잘못된 견해와 번뇌조차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대상의 실재를 믿게 한 '진리와 오류'라는 견해를 근원적으로 끊어내려 한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환상으로 고통받으며 '잘못된 견해와 번뇌만큼은 궁극적으로 실재할 것'이라 오인하기 쉽지만, 나가르주나는 치밀한 논증으로 이 전제마저 철저히 깨뜨린다.

이 책은 난해한 불교 고전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논증 구조를 정교하게 추적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고정관념과 극단적 사고를 넘어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전환시킨다. 저자들은 "한국어 번역본을 통해 나가르주나의 사고에 접근, 이해를 증진하는 작업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깨달음과 행복의 만남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세스 주이호 세갈 지음
박찬국 옮김
운주사
2만2000원

琝 서양인의 불교 일부 수용 한계
에우다이모니아 통합 모델로 대안

불교의 깨달음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접점을 다룬 신간이 출간됐다. 선불교 승려이자 예일대 의대 임상교수를 지낸 임상심리학자 세스 주이호 세갈 박사가 쓰고,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옮긴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다. 대원불교 학술총서의 47번째 권으로, 동서양 두 사상의 깊이 있는 비교 분석을 담았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책은 불교의 '깨달음'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개념인 '에우다이모니아(인간 번영과 성숙)'를 비교 분석한다. 불교의 서구 전파 과정과 '가변성의 역사'를 조명하고, 현대인이 전통 불교 교설을 수용할 때 겪는 문화적·지적 갈등을 짚어낸다.

저자는 고통과 욕망의 종식, 윤회의 중단, 철저한 자기희생 등 전통적 불교 개념이 현대 서양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에 결여된 연민과 자비를 보완해, 불교의 깨달음과 에우다이모니아를 통합한 현대적 덕목 모델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 모델은 욕망과 혐오에 대한 분별력 있는 지혜, 생각에 대한 비집착, 순간에 대한 마음챙김, 무아와 상호연결성의 인식, 그리고 공동체 참여와 자비의 실천을 아우른다. 저자는 이 모델이 현대 서양인의 세계관에 부합하며, 진정한 개인적·사회적 복지를 실현할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갈애와 건강한 열망을 구분해 감각적 쾌락의 조절과 심미적 가치를 옹호하고, 무아·공 사상을 현대 신경심리학의 '중앙 제어 장치 없음' 개념과 연결해 자아 집착의 해악을 밝혀낸다. 아울러 무조건적·무차별적인 자비심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성을 보완한 현대적인 '자리이타' 윤리를 정립한다.

책은 우주의 궁극적 구조에 아집을 내려놓는 '형이상학적 겸손'을 유지하면서도, 일상 속 실천적 지혜만으로 가치 있는 삶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동서양 철학의 융합을 담은 이 책은 불교를 현대인의 삶에 맞게 풀어내는 실천적 길잡이를 제시한다. 배희정 기자

"우파니샤드, 부처님 가르침 선명히 해"



주요 우빠니샤드 18책

현진 스님 옮김
조계종출판사
7만5000원

현진 스님, 우파니샤드 18책 번역
"신앙서 종교로 나아갈 때 가늠자"

봉선사 범어연구소장 현진 스님이 전통 우파니샤드의 핵심 18책을 완역한 〈주요 우빠니샤드 18책〉을 출간했다. '스승의 발아래 가까이 앉아 전수받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뜻의 우파니샤드는 인도 철학과 종교의 원천이자,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과 내면의 본질인 '아트만'이 하나라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깨달음을 담은 인도의 철학서다.

이번 신간은 현재 전해지는 200여 종의 우파니샤드 중 가장 비중 있는 핵심 18책을 모아 번역한 성과다. 현진 스님이 인도 푸나에서 4~5년에 걸쳐 조시 교수, P.G.랄레 교수에게 1대 1로 가르침을 받으며 기록한 내용을 2년간 다듬어 완성했다.

후대의 주석이나 제3국 언어에 의한 왜곡을 거치지 않고, 산스크리트어 원문 어원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의 결을 살렸다. 책은 우파니샤드의 사상적·역사적 배경과 핵심 철학을 다룬 1부와, 주요 18책의 본문 번역 및 각주를 담은 2부로 구성됐다.

현진 스님은 7월 20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 '담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출간 소식과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기존 번역서들이 5책~15책 수준이거나 일부 단행본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 책은 18책을 한데 엮어낸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파니샤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우파니샤드는 절대자 순종 구조를 띤 신앙적 성격으로,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불교와 대척점에 서 있어 근본 가르침을 더욱 또렷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진 스님은 이를 패키지여행과 자유여행에 비유했다. 돈만 내면 편하지만 내 경험이 되기 어려운 패키지여행이 '신앙(힐링)'이라면, 과정은 힘들어도 온전히 내 것으로 남는 자유여행은 '종교(수행)'라는 의미다. 스님은 "불교에 입문할 때는 힐링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차 종교·수행 영역으로 깊이 나아가야 한다"며 "우파니샤드는 신앙부터 시작한 사람이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일 때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도철학뿐만 아니라 세계철학·역사·문학 이해를 위한 산스크리트어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스님은 관련 연구자들을 위해 원문이 담긴 학습용 교재를 봉선사 범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배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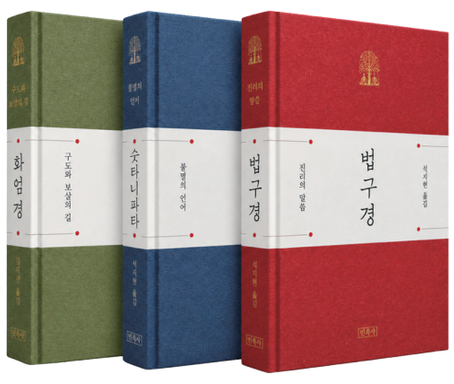


현진 스님이 7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간 출간 소회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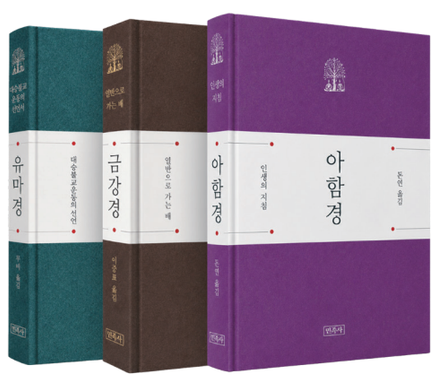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지혜, 오래 간직할 경전

소중한 분과 나에게 경전을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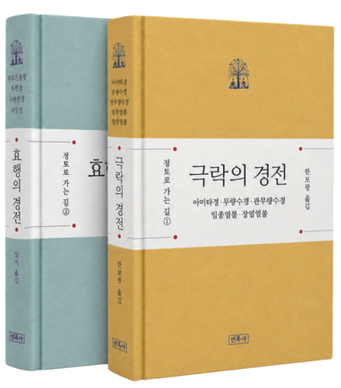
QR코드를 찍고 바로 주문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41,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3,5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3,5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34,000원
- 유마경 무비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스님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25,500원
- 극락의 경전 보광스님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일지스님 옮김 | 12,500원

민족사 대표 경전을 고급 장정 세트로 만나보세요.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